



진안형 교육생태계 만들기

진안사회의 회생을 위하여

곡성군미래교육재단 허성균

대한제국(1905-1910년) 국내외 정세

1905년

1. 가쓰라-태프트 밀약 (7.29) : 미·일, 필리핀↔한국 지배권 상호승인
2. 포츠머스 조약 (9.5) : 러일전쟁 종결·일본, 한국 우월권 확보
3. 제2차 영일동맹 (8.12) : 영국, 일본의 한국 지배 공식 승인
4. 을사늑약 강제 체결 (11.17) : 외교권 박탈·통감부 설치 예고
5. 민족 저항 봉기 (11월~) : 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민영환 자결

1906년

1. 통감부 개설 (2.1) : 이토 히로부미 초대 통감 취임
2. 을미의병·을사의병 전개 : 최익현·민종식 등 항일의병 활동
3. 애국계몽운동 확산 : 대한자강회·신문·교육기관 설립

1907년

1. 국채보상운동 (1월~) : 일본 차관 1,300만원 국민 모금으로 상환 추진
2. 헤이그 특사 파견 (6월) : 이준·이상설·이위종, 만국평화회의 호소
3. 고종 강제 퇴위 (7월) : 특사 빌미로 일제 압박→순종 즉위
4. 정미7조약·군대 해산 (7~8월) : 내정 장악·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체
5. 정미의병 봉기 (8월~) : 해산 군인 합류→전국 규모 의병전쟁

1908년

1. 의병전쟁 최고조 : 전국 의병 연합부대 서울진공작전 시도
2. 신민회 비밀결사 활동 : 안창호·이승훈, 실력양성·독립기지 모색

1909년

1. 기유각서 (7월) : 사법권·감옥 사무 박탈·자치 기능 말살
2. 안중근 의거 (10.26) :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

1910년

1. 경찰권 박탈 (6월) : 데라우치 통감 취임·병합 준비 완료
2. 한일병합조약 (8.29) : 경술국치 - 대한제국 멸망
3. 항일 저항 : 계몽·사회운동

그런데, 丁未七條約이 체결되고 고종이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퇴위되기 몇 달 전
『고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등장한다.

오늘날 급선무는 교육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늘 학교를 진흥시키
기 위한 정사에 관심을 두었었다. 관립과 공립의 학제는 대체적으로 구비되었으
나 학생들을 교육하는 조건에서는 늘 궁색한 것이 걱정인데 무엇보다 넓고 큰 건
물들을 갑자기 도처에 짓기가 곤란하다. 여러 군들에 있는 객사[館舍] 건물에는
關牌를 둔 것 이외에 아직 큰 칸들이 많으며 사신들이나 손님이 들어본 일이 없
는데 전부 내버려두어 무너지고 있으니 아무런 의의가 없다. 이제부터 모두 잘
수리하여 校舎로 만들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데 대하여 공문을

1. 진안의 일은 진안 사람이

- 진안문명학교(1907, 진안향교) -> 공립진안보통학교로
흡수(1911) -> 진안초등학교(1911?)
- 사립용강학교(1908, 용담향교) -> 사립용담보통학교(1911) ->
공립용담보통학교(1912) -> 송풍초(1951)?
- 사립화동학교(1908, 주천면) -> 공립주천보통학교(1919) ->
주천초등학교(1919 ?)
- 사립어은동보통학교(1910)

大 舟 深 水

장자

2. 과제 인식이 문제해결의 첩경

- 20세기 초에는 근대 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였고,
- 21세기 초인 지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진안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이 절실한 과제
- 잘 기르려면 수도권(도시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해야.

□ 새로운 학력관 검토

계산문제나 사실의 암기를 묻는 기초적인 항목에서는 최상 수준의 성적, 창조적인 사고와 과학의 본질, 환경문제에서는 세계평균 밑돌아.

19세기형 학력에서는 우수, 21세기형 학력에서는 크게 뒤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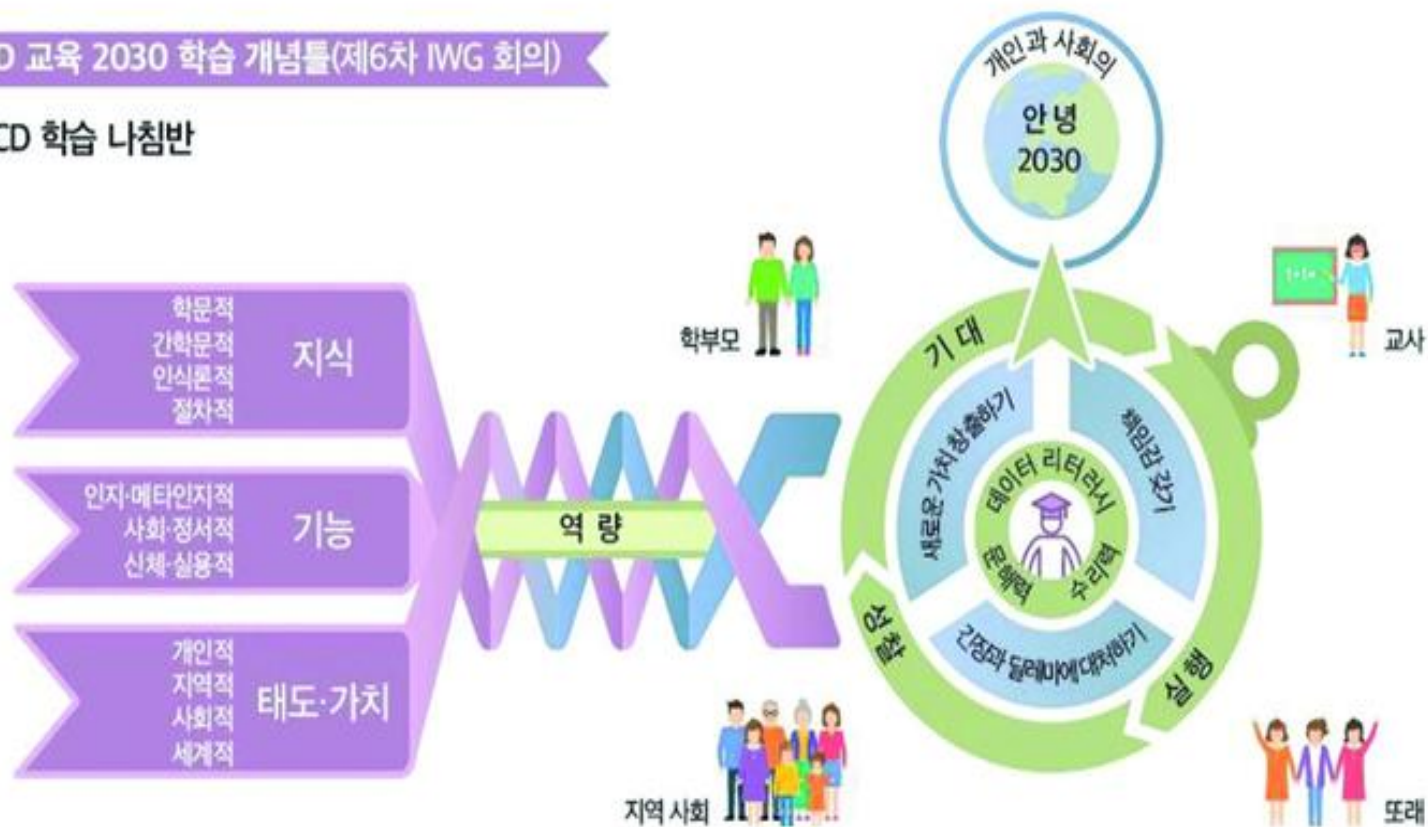
사토 마나부,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

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성과 서로 존중하
고 협력하는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배경

OECD 교육 2030 학습 개념틀(제6차 IWG 회의)

OECD 학습 나침반



3. 사례-곡성에서 교육의 해석

- 교육은 공공재

-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 추진
-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적 전략

- 개인 또는 가문의 일로 해석하는 경우

- 교육불평등이 심화되는 건 개인 또는 가문의 책임으로 간주
- 개인과 가문의 욕망을 성취하는 배타적, 경쟁적 도구

소득이나 젠더, 인종 등 자녀들이 발명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해 미국의 모든 자녀들에게 온전한 기회를 준다면, 미국에서 발명가가 되는 아이들은 지금의 4배로 늘어날 것이다. 사회적 격차(자산, 소득, 젠더, 인종 등)를 줄이면 미국 사회 전체가 훨씬 더 혁신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아이들이 발명가가 될 확률>

- 부모 소득이 중간 이하일 경우 : 아이들 1,000명 당 0.84명
- 부모가 상위 1퍼센트일 경우 : 아이들 1,000명 당 8.3명

체티, <잃어버린 아인슈타인들>(2017), 미국 불평등 연구자

4. 사례-곡성사회의 회생을 위하여

- 기존의 사유 방식과 행동 방식으로 새로운 곡성을 만들 수 있을까?

“어제의 방법으로 내일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

내일의 문제를 풀려면 사고의 차원을 바꿔야 한다.”

마이클 J. 마퀴트(2011), 질문 리더십

곡성사회의 회생(목적)을 위한 교육 전략

곡성형 교육생태계 구축(목표)



교육-성장 불균형 해소 전략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운영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연혁

1. 곡성군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8. 12. 27.)
2. 곡성군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2019. 3. 4. ~)
3.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2019. 12. 27.)
4.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설립 창립 총회(2020. 5. 6.)
5. 현재 4팀(행정운영팀, 평생교육팀, 창의교육팀, 지역교육팀) 18명(군청 파견4, 교육청 파견1)

익숙한 사유 방식과 행동 방식을 성찰하여,
지켜야 할 것, 멈출 것, 새로 창출해야 할 것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진안을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진안에서 지금, 함께
무엇을 시도해야 할까요?